2012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보고서

일본: 일본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 거주서비스 환경변화 모색



팀명: 복지최강김양

팀원 : 김영경(한마음학원)
장성만(무궁애학원)
이동렬(한마음학원)
이태옥(늘푸른집)

후원: STX복지재단

주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Ⅰ. 연수개요

<table>
<tr><td>연수유형 및 주제</td><td colspan="3">(공모형) 일본 -일본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 거주서비스 환경변화 모색</td></tr>
<tr><td>연수기간</td><td colspan="3">2012. 9. 18. 화 ~ 2012. 9. 22. 토</td></tr>
<tr><td>연수팀명</td><td colspan="3">복지최강김양팀</td></tr>
<tr><td rowspan="5">팀 소개</td><td>직책
(연수팀)</td><td>이름(소속)</td><td>팀내 역할</td></tr>
<tr><td>팀장</td><td>김영경(한마음학원)</td><td>실무책임자, 견학시설 연관업무,
연구기획 담당.</td></tr>
<tr><td rowspan="3">팀원</td><td>장성만(무궁애학원)</td><td>연구기획에 관한 자료수집,
사진촬영, 동영상 기록</td></tr>
<tr><td>이동렬(한마음학원)</td><td>일본어 통역,
자료수집 및 번역</td></tr>
<tr><td>이태옥(늘푸른집)</td><td>견학내용 기록</td></tr>
</table>

Ⅱ. 연수목적 및 목표

1. 연수목적

1)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2)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중증장애인 케어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등을 이해한다.

3)일본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선택권보장과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일본의 정책들과 사례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연수목표

1)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의 변천사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2)일본의 중증장애인 케어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등을 이해한다.

3)일본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적용점을 모색한다.

Ⅲ. 연수일정

날짜	방문기관	세부 일정
제 1일 9/18(화)	-문화체험	-김해공항 출발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오다이바 이동 -후지 TV 본사 스튜디오 -메가웹 도요타 자동차 쇼룸 관광
제 2일 9/19(수)	-오전:치바 하모니 프라자(장애인복지센터) -오후:화토비아 하라주쿠(시부야구 장애자 복지센타)	-기관 담당자(센타장, 부원장)와 간담회 -기관 라운딩
제 3일 9/20(목)	-오전: 가나가와 장애자 자립생활지원센터(키르쿠) -오후:요루베카이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키르쿠)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 이사장, 토카이 -기관 라운딩(요루베카이): 요루베누마시로, 코스타 니노미야, SP기획
제 4일 9/21(금)	-오전: 장애인스포츠문화센터 요코하마 라포르 -오후: 요코하마야마비코노사토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 -기관 라운딩
제 5일 9/22(토)	-쇼핑몰 이온 -비행기 탑승	-이온에서 쇼핑 -12시 나리타 공항 출발수속 -16:10 김해공항 도착

Ⅳ. 방문기관 개요 및 견학 내용

1. 치바 하모니 프라자(장애인복지센터)

기관명	치바 하모니 프라자 (장애인복지센터)	**방문일자**	2012년 9 월 19 일 10:40~12:20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치바시사회복지사업단	**홈페이지**	www.shafuku-chiba.jp/shogaifukushi.html
기관장명	하기와라 센터장	**담당자명**	키노시타 상
주소 및 연락처	260-0844) 치바시 중앙구 치바테라마치 1208-2 (千葉市中央区千葉寺町1208-2) 전화: 일본. 043-209-8779 팩스:일본. 043-209-8782		
견학 내용	1. 기관 담당자 간담회: 사업내용, 기관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2. 라운딩 3. 질의응답 4. 기념품 증정		
비 고	-복지최강김양팀의 연수목적과는 크게 상관없어,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설명을 위주로 들었음. -앞으로 거주시설 시설의 개방과 연관지어 벤치마킹 할 필요성.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관련해서 유심히 살핌. -다양한 복지시설을 견학한다는 데 의의가 큼.		

1)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①각종상담사업

②강좌: 스포츠(탁구, 양궁, 배드민턴, 수영 등), 창작활동(직물, 가죽공예, 서예 등)

③레크레이션 행사: 7월 페스티발, 크리스마스, 스포츠 등

④기능훈련

⑤사회적응훈련: 음악치료, 컴퓨터교실, 산책 등

⑥주택개조상담

⑦복지기기전시장 운영

⑧시설개방: 다목적홀, 운동실, 회의실, 수치훈련실 등

⑨동호회 활동

2) 질의응답

■ 강좌의 경우, 강사 자격과 강사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강사는 실비 자원봉사자이며, 강사비는 소액으로 센터에서 지급.

■ 수영장(수치훈련실)의 경우,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며, 장애

인이 이용하는 시간과 겹치지는 않는지?

☞장애인 이용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요일과 시간을 달리 하고 있음. 장애인 강좌가 많을 경우, 외부인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기도 함.

■ 센타는 B형 이라고 했는데, A, B형의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센타의 규모, 설비에 의해 A,B구분. 면적이 적고, 숙박시설이 없어 B형임.

■ 주택개조상담의 경우, 상담으로 끝내는지 개조를 도와주는지, 상담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건물개축비는 어떻게 충당되는지?

☞상담은 1급 건축사가 하며, 민간 건축사와 제휴를 통해 1년간 일정액을 건축사에게 지급함. 개조에 관해 조언을 해주며, 건물개조비는 대부분 본인부담(본인+개호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음. 자세한 사항은 행정전문이 아니라서 시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음.

3) 기관방문 소감

- 넓은 복도에 2중으로 된 복도 난간 안전바, 휠체어가 들어가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휠체어를 타고 바로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 엘리베이터에 둘러쳐져 있는 안전바 등 베리어 프리에 관해 세심한 곳까지 신경쓴 시설환경이 놀라웠음.

4) 견학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하기와라 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td><td>-넓은 복도와 이중으로 된 안전바</td></tr>
</table>

	
-수치훈련실: 휠체어를 타고 바로 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설치되어 있었음.	-복지기기전시장의 전시품들: 각종 휠체어와 신발, 수저, 지팡이 등 다양한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음

2. 화토비아 하라주쿠(시부야구 장애인복지센터)

기관명	화토비아 하라주쿠 (시부야구 장애자 복지센타)	**방문일자**	2012년 9 월 19 일 15:00~16:40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우애학원 (友愛學園)	**E-mail**	heartpiaharajuku@sand.ocn.ne.jp
기관장명	-	**담당자명**	와타나베 상(부원장)
주소 및 연락처	150-0001)시부야구 신궁전 3-18-37 (渋谷区神宮前3-18-37) 전화: 일본. 03-5412-0050 팩스: 일본. 03-5412-2355		
견학 내용	1. 기관 담당자 간담회: 사업내용, 기관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2. 라운딩 3. 질의응답 4. 기념품 증정		
비 고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관련해서 유심히 살핌. -다양한 복지시설을 견학한다는 데 의의가 큼.		

1)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명		이용자격	내용	정원
시설입소지원		18세이상으로 지적장애가 있고 장애인자립지원법에 규정하는 장애정도 구분이 4(50세이상의 경우는 3)이상의 사람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에게 야간 및 휴일에 입욕, 배설, 식사 개호등을 실시합니다.	30人
생활개호		18세 이상으로 지적장애 또는 신체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구분이 3(50세이상의 경우는 2)이상의 사람	주간의 입욕, 배설, 식사 개호등을 실시하면서 창작활동,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64人
아동발달지원	화토피아키즈	치료와 보육의 관점에서 집단양육의 실시가 요구되는 미취학아동	일상생활의 기본적 동작지도,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훈련을 실시합니다.	오전 및 오후 각 20人
	하토피아핏코로	언어청각훈련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아동	언어청각에 관한 개별훈련지도를 실시합니다.	30人
단기입소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 재가 . 지적장애 또는 신체장애가 있을 것 . 6세이상 . 장애정도구분 1이상	개호자가 질병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 야간을 포함하여, 시설에서 입욕, 배설, 식사 개호등을 실시합니다.	4人
주간일시지원		특별지원학교의 초, 중등부에 통학하고 있으며, 방과후 보육이 요구되는 아동 및 학생	가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주간활동의 장을 제공합니다	12人
상담지원 (화토피아상담센터)		지적, 신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및 개호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등을 실시합니다.	

2) 시설의 주요 용도

■ 1층: 아동발달지원(화토피아키즈, 화토피아 핏코로), 주간일시지원, 상담지원(화토피아 상담센터), 관리사무실

■ 2층: 생활개호(신체, 지적), 개호용 욕실, 일반욕실

■ 3층: 시설입소지원 (3 유니트, 정원은 각 5명), 단기입소 (2인), 식당, 회의실등

■ 4층: 시설입소지원 (3 유니트, 정원은 각 5명), 단기입소 (2인), 옥상운동장

3) 질의응답

■ 인원제한(정원)이 있는지 여부?

☞한국처럼 정원에 따라 시설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원이 정해짐. 1.8명당 직원 1명 배정(입소시설의 경우)

■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시부야구에서 지원함.

4) 기관방문 소감

- 화장실 부분에 있어, 모든 사람. 장애인(요루 등 내과 관련 수술 환자 포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 완비 되어 있었음. 또한 남녀 구분 없이 한 쪽 성별이 많을 때는 다른 쪽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었음. 한국의 경우 어디를 가나 여자들은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야 하고, 남자들은 화장실이 텅 비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많은 곳에 이렇듯 변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기다림으로 인한 비효용성을 줄이고 있었음.

5) 견학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와타나베 부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td><td>-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의 진수인 화장실.</td></tr>
<tr><td>  </td><td>  </td></tr>
<tr><td>-지진으로 인해 새로운 규칙: 모든 근무시설에는 안전모 설치.</td><td>-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시설의 외관.</td></tr>
</table>

3. KILC(Kanagawa Independent Living Center):가나가와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관명	KILC키르쿠	방문일자	2012년 9월 20일 10:30~12:30
운영주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KILC	E-mail	hinoki1@comet.ocn.ne.jp
기관장명	-	담당자명	스즈키 사무국장
주소 및 연락처	254-0815)가나가와현 (神奈川県平塚市東中原 2－14－19) 전화: 일본. 0463－34-2259 팩스:일본. 0463-34-2259		
견학 내용	1. 기관 담당자 간담회: 사업내용, 기관운영, 일본복지계 변화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장애복지역사에 대한 설명. 2. 질의응답 3. 기념품 증정		
비 고	-자립센타 자체는 좁아서 현의 도서관 건물을 이용해 간담회 실시 -한국의 IL센타와 시설은 일종의 대립 형태를 띄고 있어, 일본의 시설과 자립센타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음. -한국, 일명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을 부러워 함.		

1)키르쿠의 의미: 키르쿠란 가나가와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의미하는 [Kanagawa Independent Living Center] 의 첫 글자를 취해 [KILC] 라고 표기. 이것을 [키르쿠]라고 읽고 지원센터는 이 키르쿠라는 애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2) 키르쿠의 연혁

1982年 미일 장애인세미나 개최
1983年 가나가와현 장애인자립세미나 개최(이후, 5년에 걸쳐 현 각지에서 개최)
1988年 가나가와현 장애인운동단체연락회 발족
1990年 현 [중증장애인자립문제연구회] 설치
1994年 현 [장애인의 지역생활지원에 관한 연구회] 설치
1996年 동 연구회에 의해 자립생활센터 (가칭) 설치의 구체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현에 제출
1997年 가나가와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KILC)개설
2002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인증취득
2003年 平塚시내에 [平塚사무소]개설
2005年 平塚사무소에서 지원비제도의 지정사업소 [주간서비스센터 키르쿠] 개설
2005年 南足柄시내에 足柄사무소[아시가라 자립생활센터] 개설
2005年 가나가와현 현민공로상을 수상

3)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①동료상담 및 각종상담사업:

장애별로 동료상담사를 배치하여 각종상담을 진행.
원하는 사람이이 있으면 방문, 출장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②정보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에 관한 정보제공과 조사활동의 취진도 필요함. 센터에서는 많은 복지관계자와 전문기관등과 연계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③연수, 사회계발, 보급 및 홍보사업:

센터의 사업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운영하는 당사자리더와 같은 인재 육성이 급선무의 과제임. 센터에서는 다른 연수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동시에 자립생활포럼 등을 기획하여 일반시민도 참여하며 장애인문제의 계발, 보급에 힘쓰고 있음.
자립생활포럼개최/ 장애인리더 양성연수/ 중증방문개호종사자양성연수/홍보활동

④거택개호파견사업(휴먼네트워크 湘南)

홈헬퍼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지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 서비스자원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이 현실정임. 따라서 그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방문개호파견을 실시하고 있음.

⑤복지마을만들기사업

베리어프리 사회의 실현을 향해 현 내 각지역을 장애당사자가 직접 조사, 점검, 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행정과 관계기관에 제언하면서 시책의 책정에 관여하고 있음.

⑥인터넷 커피숍 운영

4)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센타와 관련된 현안 설명

■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배경 설명: 정치적 배경 변화(자민당-민주당 정부), 민주당 3년, 초기에는 혁신적이었으나 현재에는 생각보다 변화가 없음. 좋아지기보다 점점 격차 벌어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격차. 같은 서비스가 5~6배 차이남.
예) 요코하마-1,620시간/ 도쿄: 200~250 시간, 120시간 등

■ 시설.병원에서 복지재원의 80%, 재가 20% 인데, 파이를 키워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장애자자립지원법. 발상은 좋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음. 자립지원센타는 예산을 더 높여 이 격차를 없애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음.
장애자자립지원법→ 장애자종합지원법으로 바뀜

■ 장애자 본인이 추진

- 전체 장애자가 한마음으로 운동.

- 장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가족, 종사자)도 참가하는 계기가 됨. 운동을 통해, 국회안건 회부되어 더 의미가 있고 더 큰 움직임으로 발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차법은 한국이 먼저, 부럽다고 함. 현재 일본에는 조례에는 있지만 법률로 정해지지 않음. 법률 개정이 없어 촉구 및 분개, 운동 중임.

■ 유니버셜디자인에 관하여: 현재 카나가와현에는 5,000대의 버스가 베리어프리시설이 되어있음. 단 버스는 베리어프리 나 도로턱이 높아서 못 내리는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많음(마음의 베리어프리 구축이 필요!!). 우리나라 지하철 추락 방지문이 부럽다고 함(자살, 취객 추락 등 방지를 위해 마련된 속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됨. 곧 유니버셜 디자인 이 아닐까).

5) 질의응답

■ 한국의 경우 자립지원센타의 주 목적이 탈시설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해보자, 스스로 스스로 자립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발. 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생해야 하는 부분이지 배척할 사이는 아님.

■ 현재 자립지원센타의 이슈는 무엇인지?

☞저출산이지만 장애아가 증가하는 것이 고민. 운동에 민간참여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고민(민간이 이해해야 법 개정, 경제적 지원(복지예산 증가) 등 행동이 따라 줌)

6) 기관방문 소감

- 일본 전체의 자립생활지원 및 장애인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고, 지체장애인인 스즈키 사무국장이 오랜 시간동안 말하기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한국이 법률면에서는 앞선 것도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쉬웠음. 우리나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잘 못 흘러가는 운동 방향성에 관하여, 일본측과 유대관계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7) 견학 사진

	
-키르쿠 담당자를 기다리면서 해외연수 전체팀의 단체사진	-스즈키 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4.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 요루베누마시로, SP기획, 그룹홈, 코스타 니노미야

1)기본이념.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평등하게 자립을 향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한 활동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회참가를 지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여,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다.

자립이란,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2)기관 연혁

1984年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 설립인가
1985年 지적장애인입소시설[누마시로원(園)]개설 (정원50명)
1988年 특별양호노인홈[히카리노사토]세탁업무하청. 이용자 4명의 일(업무)로서 시작 (도(縣)장애인복지적취업협력사업소인가)
그룹홈 [카메리아 제 1/ / 제2 홈]개설
상설점포「포인또· 1」개설

특수학교아동대상「요루베여름학교」開始(2000年가나가와현 단기입소사업제도 등 지원체재가 실시되어 종료)

1990年 이용자전원(50人) 이 기업에서 실습체험(협력:(株) 오타나베 캬비넷토)
橘지역 독거어르신 급식서비스(橘北지구사회복지협의회와공동)
(1993年오다와라市의 사업이 되어 종료)

1991年 실크인쇄작업을「SP企画」이라 명칭하고 니노니야마치 임대공장에서 독립사업으로.(현(県)장애인복지적취업협력사업소인가)

1994年 그룹홈「나스카의 집] 개설/ 지역생활지원(현 지역생활지원과) 본격실시

1995年 누마시로엔(園)주간보호부(정원１５名) 개설

1996年 그룸홈 [잇시키 하우스]개설
누마시로엔(園)을 [요루베누마시로]로 명칭변경

1999年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코스타 니노미야]개설
그룹홈 [쇼난비렛지]개설

2000年 고충해결시스템JSY네트개시 (社会福祉法人至泉会、寿徳会와 3법인공동설치)

2001年 장애인자활훈련사업에 의해 자활훈련동(棟)설치

2002年 장애인케어매니지먼트사업시행개시
장애아(인)지역양육등지원사업 및 지적장애인생활지원사업에의해,
장애인상담지원시설 [포켓또] 개설

2003年 ISO9001：２０００(국제품질관리시스템) 인증취득
오다와라시(市)립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매향원]수탁운영

2005年 그룹홈 [에피나르홈], [폴라리스홈] 개설
[SP기획]을 코스타 니노미야의 분점으로 변경설치
[요루베누마시로]정원50명을 40명으로 변경
[포켓또]이전, 장애아(인)지역양육등지원사업및지적장애인생활지원사업에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사업이 추가되어,[장애인지원센터 포켓또]로서 재편

2006年 [요루베누마시로]개수공사 (완전1인실화), 배리어프리

2008年 [매향원]새로운 체계로 이행, 엘리베이터설치

2009年 [요루베누마시로] [코스타 니노미야] 새로운 체계로 이행

3)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사업소명	사업내용	활동내용
요루베누마시로 	1. 시설입소지원 2. 생활개호 3. 취업계속지원B형 4. 단기입소 5. 주간일시지원	양계작업 농경작업 가벼운작업 그 외 지역생활지원 각종위원회 자치회 사회세미나 등의 자주활동 클럽· 레크레이션· 계절행사 여행 등의 여가활동 등
코스타· 니노미야 	1. 취업이행지원 2. 취업계속지원B형 3. 주간일시지원	제빵작업 제면작업 시설외부지원 클럽 각종위원회 계절행사 여행 등의 여가활동 위원회활동 등
SP기획 	1. 생활개호 2. 취업계속지원B형	간단작업 가벼운작업 클럽 각종위원회 계절행사 여행 등의 여가활동 위원회활동 등
매향원 	1. 취업이행지원 2. 취업계속지원B형 3. 자립훈련 4. 생활개호	실크스크린인쇄 타올인쇄 간단작업 청소하청 재활용품 분별작업 등 클럽 각종위원회 계절행사 여행 등의 여가활동/위원회활동 등

4)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의 설립배경 등 설명

■ 현재는 입소자가 고령화 되어서 지역사회로 나갔다가, 다시 시설로 입소하는 추세. 누마시로에는 대부분 고령자가 많음.

■ 일 중심→ 체력중심으로, 시설 중심→ 지역사회 중심, 현재는 다시 시설로 돌아옴.

■ 운영재원은 개인부담으로 충당, 현 시설은 등급이 낮아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나 지역사회의 도움과 자선행사를 통해 운영비 충당하고 있음.
(달력판매, 1년간 3,000개)

5) 질의응답

■ 시설이 산속이고 인근 지역사회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유는?

☞지역사회의 반대 때문이었음. 현재에는 많은 노력 끝에 시설을 이해해주고 있음.

■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행사를 함께 개최함. 상공회의소 등과 자선행사 실시.

■ 코스타 니노미야의 제빵과 관련하여, 판로는? 이용자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학교 급식소와 연계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음(우리나라와는 달리 우선구매제도가 아닌 직접 발로 뛰어 판로 개척했음). 임금은 차이가 있는데 6,000¥정도.

■ 임금에 관해 지급 규정이나 압박은 없는지? 몇 % 정도는 최저임금이상 지급 등의 압박이 있음.

☞일본은 규정이나 압박 없음. 기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최대의 가치로 여김. 개인연금과 급여로 생활할 수 있음.

■ 자립에 대한 생각이나 지원방법은?

☞중증이라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있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요루베누마시로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시설로의 전원시키라는 압박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측에서도 이해하고, 예전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을 그대로 생활하게 함.

6) 기관방문 소감

- 법인 본부와 처음에 생겼던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있어, 입구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했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반대때문이었다고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 새삼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인식이 개선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느꼈음. 요루베누마시로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노인에 대해 돈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과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제공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음. 시설을 신축할 때 정부에서 재원을 다 지원 해주지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일정액 부담과 법인 자부담으로 2~30년간 빚을 갚는다고 했음. 운영에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를 통해 몇 년 간 갚을 수 있는 계획하에 시설을 짓는다는 것도 인상 깊었음. 민과 관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관이 도우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빚을 떠안고 새로운 시설을 짓고 운영하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민과 관이 합의점을 통해 복지사업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부러웠음.

- 견학 전부터 이메일로 많은 내용을 주고 받아, 담당자 토카이씨가 낯설지 않을 정도였음. 법인산하 기관들이 많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멀리 떨어진 곳도 많아서, 이번 연수에서처럼 차량이 우리 단독으로 지원되지않아 내부적으로 이동할 때 차량지원을 부탁했는데, 흔쾌히 들어줘서 더욱 감사했음.

7) 견학 사진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 이사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td>
<td>-기관담당자들과 함께 A팀 사진.</td>
</tr>
</table>

	
-경제적 활동이 되지 않더라도, 소일거리와 여가를 위해 실시한다는 일감. 프로그램	-제빵작업과 판로 등에 관해 설명

5. 장애인스포츠문화센터 요코하마 라포르(YOKOHAMA RAPPORT)

기관명	**요코하마 라포르**	**방문일자**	2012년 9 월 21 일 10:30~11:40
운영주체	설치: 요코하마시 지정관리자: 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 재활사업단	**홈페이지**	www.yokohama-rf.jp/shisetsu/rapport/
기관장명	-	**담당자명**	야에가시 상
주소 및 연락처	222-0035)요코하마시 (**横**浜市港北**区**鳥山町1752) 전화: 일본. 045-2001 팩스:일본. 045-475-2053		
견학 내용	1. 기관 담당자 간담회: 사업내용,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 라운딩 3. 질의응답 4. 기념품 증정		
비 고	-20년전 장애인 스포츠, 문화의 거점으로 설립 된 시설. -장애자 우선시설, 장애자 무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비 갖춤.		

1)기관 설립 일자: 1992년 8월 28일.

2)라포르의 역할

①장애인의 스포츠, 레크레이션진흥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

②재활스포츠중심시설로서의 역할

③건강을 다지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④장애인의 문화, 정보활동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

⑤시민상호간의 교류촉진 거점으로서의 역할

⑥장애인자신의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지원적 역할

요코하마 라포르의 [라포르]는 프랑스어로 [마음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본 센터의 이름으로 잘 어울리며, 요코하마 라포르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상호간의 교류의 폭을 넓혀, 또한 정상화의 추진에 있어서 거점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함.

3)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요코하마 라포르는 장애인의 건강다지기와 사회참가 그리고 시민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은 스포츠부문과 문화부문의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각각 소프트, 하드 양면에 있어서 세심한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향한 환경 만들기를 촉진하고 있음.

①스포츠: 스포츠, 레크리에션 사업, 스포츠교류, 이벤트사업, 재활 스포츠 사업, 지역지원사업

②문화: 문화기획사업, 정보네트워크사업, 장난감도서관사업

③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 수화, 필기통역사의 파견, 청각장애인상담, 그리고 청각장애인용 자막이나 수화가 내재되어 있는 비디오 제작, 대여등

④홍보:요코하마 라포르의 사업과 시설정보를 홍보함과 동시에 장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지, 사업안내 등을 발행.

4) 질의응답

■ 이용방법은?

☞이용자 카드 사용, 장애자 무료. 비장애인 어른:500, 어린이 250엔.
연 42만명 이용하고 있음.

5) 기관방문 소감

- 다양한 시설 구비로 우리나라로서는 언제쯤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부러웠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볼링장과 외부 주차장 한 켠을 이용해 줄을 몸에 매달고 달릴 수 있는 트랙 등 베리어프리를 잘 보여주었음.

6) 견학 사진

	
-담당자로부터 운영 등 전반적인 설명	-유니버셜 디자인 된 볼링장:시각안내, 음성지원, 지체장애인을 위한 난간 등

	
-주차장 한켠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트랙 설치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

6. 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 히가시야마타코-보, 히가시야마타 레지던스

기관명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 산하 시설**	**방문일자**	2012년 9 월 21 일 13:30~17:00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	**홈페이지**	www.yamabikonosato.jp
기관장명	세키미즈 미노루	**담당자명**	호시노 시설장
주소 및 연락처	224-0024) 요코하마시 (**横**浜市都筑**区**東山田町２７０番地) 전화: 일본. 045-591-2728 팩스:일본. 045-591-2768		
견학 내용	1. 기관 담당자 간담회: 사업내용, 기관운영, 자폐증에 대한 이해와 실제(강의) 2. 라운딩 3. 질의응답 4. 기념품 증정		
비 고	-부모회가 모체가 되어 설립한 자폐증 전문 기관. -견학 준비 시부터 제일 기대가 큰 기관이었음. -자폐증, 자폐를 동반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음.		

1) 이념과 취지

①요코하마시 자폐증(아)인 부모회가 모태가 되어 창설
②자폐증 특화시설
③자폐증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다.
④자폐증인의 사회차가를 목표로 한다.

2) 기관 연혁

1983. 2 요코하마시 자폐증(아)인 부모회내에 설립준비회를 결성
1983. 5 부모회총회에서 설립자금을 전회원이 지원하기로 결정.
1988. 12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설립발기인회를 개최. 설립준비위원회발족
1989. 11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가 법인인가.
1990. 7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히가시 야마타코-보] 개소.
1993. 4 장애인지역작업소[S.E.센터樽町] [지역센터 港南즈토]의 운영지원개시.
1994. 4 장애인지역작업소[마론와-쿠스]의 운영지원을 개시.
1994. 4 그룹홈[하우스BEE」의 운영을 개시.
1994. 11 그룹홈[하우스SEA」의 운영을 개시.

1995. 4 장애인지역작업소「YOU」「WORK ASSIST(와-쿠어시스토)仲町台」의 운영지원을 개시.

1995. 4 자폐증에 관한 홍보계발과 상담지운을 실시하는「仲町台발달장애센터」개설.

1995. 5 만남의 가게(SHOP)「STEP」개점 (츠즈키 구청내)

1996. 5 지적장애인입소시설[히가시야마타 레지던스] [히가시야마타 지역케어플라자] 개소.

1998. 2 그룹홈 [하우스EEL]의 운영을 개시.

1998. 3 그룹홈 [하우스DOUX]의 운영을 개시.

1999. 7 고령자재택개호지원센터의 수탁.

2000. 3 그룹홈 [하우스F]의 운영을 개시.

2000. 4 개호보험에 의한 거택개호지원사업, 주간개호사업의 개시.

2000. 6 그룹홈 [하우스G]의 운영을 개시.

2000. 6 「YOU」를 히가시야마타 코-보의 분점화.

2002. 4 「마론 와쿠스]를 히가시야마타 코-보의 분점화.

2002. 7 요코하마市자폐증· 발달장애지원센터[요코하마· 자폐증 지원실] 수탁개시.

2003. 4 「仲町台발달장애센터를 仲町台센터」로 명칭변경.

2004. 1 「요코하마市 혼모쿠와다 지역케어플라자」개소.

2004. 4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르토 노-켄다이] 개소.

2004. 4 자폐증을 특화한 가이드도우미 파견사업소 [헬퍼센터야마비코] 개소.

2005. 7 「S.E.센터樽町」를「아이텍크」로 명칭변경 및 이전.

2006. 4 지역케어플라자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개설.

2006. 9 만남의 가게(SHOP)「스텝」의 운영을 종료.

2006.10 그룹홈(6개소)을 케어홈으로 사업이행.

2007. 4 보르토노-켄다이를 새로운 사업체계로 이행.

2007. 4 지역작업소(2개소)를 사업종료하고, 지역활동지원센터로서 개설.

2007. 7 히가시야마타 코-보, 히가시야마타 레지던스, 마론와-쿠스를 새로운 사업체계로 이행.

2008. 5 「요코하마· 자폐증지원실」를「요코하마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이전.

2009. 4 「WORK ASSIST仲町台」를「WORK ASSIST 야마비코」로 명칭변경 및 이전.

2010. 4 WORK ASSIST 야마비코를 지역활동지원센터에서 취업이행지원사업소로 사업이행.

2010. 9 케어홈 [하우스 힐사이드]의 운영을 개시.

2012. 3 케어홈 [하우스 i」의 운영을 개시.

2012. 4 「WORK ASSIST 야마비코」에서 취업계속지원B型사업의 개시.

3)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①시설입소지원, 생활개호사업: 히가시야마타코-보, 히가시야마타레지던스, 보르토노-켄다이 운영

②이동지원사업, 행동지원사업: helper센터 야마비코

③주간개호, 거택개호지원사업, 지역포괄센터, 지역활동교류사업: 히가시야마타케어플라자, 혼모쿠와다케어플라자

④지역지원사업: 케어홈 7개소 운영, 마론(YOU), 아이텍크

⑤상담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

⑥발달장애인지원개발사업

⑦자립생활 assistant 파견사업 등

⑧취업지원: work assist 야마비코,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B형, job coach 사업, 집단훈련사업

4) 자폐증의 이해와 관계의 실제 설명

■ 자폐증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다: 자폐증이라는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들추거나, 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서 인정하고 맞춘다.

■ 자폐증은 '의미이해'의 장애: 의미이해가 약하면....(장애특성의 이해)

-집단이 서툶, 언어가 서툶.

장애에 맞추기 때문에, 집단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언어의 지나친 의존대신, 시각적으로.

■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증의 어려움 중 주된 증상은?

-고기능군에서는, 틀린 의미부여, 독특한 해석, 오해 등이 문제가 되지만, 장애가 심한 자폐증인에 있어서는, 의미 그 자체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의미에 기초한 행위를 하기 어렵다.

-의미와 행위의 분리화경향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들의 일은, 자폐증인의 사회적 의미와의 연결고리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

■ 당사자의 말: '말을 영상으로 이해했다. 영상으로 되지 않는 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자폐증인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위치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자신의 주변세계를 잘 이해 할 수 없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능숙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고, 주변 세계의 변화에 대한 통찰도 할 수 없어, 대처방법을 생각하는 기술도 없다'

■ 구조화와 시각화: 자폐지원의 키워드
-공간, 시간, 작업의 구조화
-시각화

■ 관계형성(방법)의 기본
-잘하는 것을 활용하여, 잘 못하는 것을 지지한다.

5) 질의응답

■ TEACCH에 관한 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개발, 개별지원 방식.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따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음. 구성은 체계적임.

■ 시설 규모 줄이라는 요구는 없는지?

☞요코하마시에서는 2년마다 정원의 5%를 지역사회로 내보내라고 하고 있음. 그룹홈(케어홈)으로 보내고, 시설에 다시 5% 입소 시킴.

■ 약복용 및 치료현황 등

☞촉탁의, 주치의 진료, 40명중 36명이 정신과약 복용 중. 치과진료시 전신마취.

■ 헬퍼센터의 업무내용 등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카드를 이용해서 지원, 대인관계도 늘어나고 생활의 범위가 늘어남. 지역사회에 자폐인을 알리는 계기가 됨. 지역사회 인식개선 회복.

■ 그룹홈 운영 등

☞땅 주인이 지방정부의 추천으로 집 지어 은행융자금 갚음. 20년 단위 월세계약.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사짓기 힘들어 수입이 줄어드는데, 장애인과 노인이 서로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라서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좋음.

■ 자격증에 관하여,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있는지?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로 소용없음. 지적장애인에 대한, 근무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는 의무화하자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 직원채용은 잘 되는지?

☞어려운 편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복지사를 못 구하는 것과도 일맥상통. 대학에서도 복지학과가 폐지되고 경제학과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음. 인력확보가 문제시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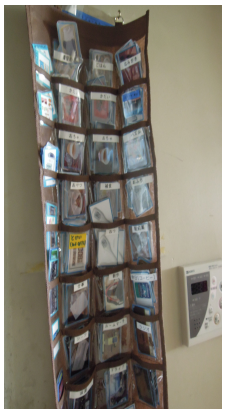
■ 자폐증의 지원과 케어홈 등의 자립정도?

☞지역사회 환경조성,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신변자립이 안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예전 의료모델일 때는 장애를 비장애인 만큼 높이려 했음. 현재는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6) 기관방문 소감

- 자폐증을 동반한 장애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음. 우리 팀의 이번 연수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었음.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음. 개별에 맞춰 식탁이용, 직업재활 작업활동 모습도 인상적이었음. 작업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도 낮시간동안 그룹홈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해서 그 모습이 궁금했는데, 작업장 한켠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불과 요가 깔려있으면서 그 곳에서 작업실을 쳐다보고 있는 장애인도 있었음. 우리나라에서도 공간을 확보하여, 함께 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인정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람.

7) 견학 사진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자폐증인의 특성에 맞도록 시각화 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구들:일정표, 목욕할 순서와 부위 안내</td>
<td>-시각화 자료들,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 시각화</td>
</tr>
</table>



-시각화: 실물도 사용(식당이용, 식사하는 곳 안내용)



-시각화:화장실 사용순서



-1인 1실: 특성에 따라 방이 꾸며진 곳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방도 있었음



-복층 유니트 구조로 되어 있는 생활실. 이층에서 본 거실 모습



-요건뭐?: 자극을 싫어하는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1인용 식탁!



-자폐증 특성에 맞는 개별지원, 큰 식탁에 의자가 1~4개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의 음식을 집어먹는 등 특성에 따라.



-식사지원 및 식탁배치 등에 대해 설명 듣는 모습.



-각 층마다 배치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 이용자와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해둠.



-TEACCH 지원에 따른 개별공간: 작업도 특성에 맞게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폐증 특성에 맞는 개별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함. 일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와 특성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음.



-혼자 이렇게 작업에 열중하는 사람도 있고, 입구에서 '손님맞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음



-호시노시설장과 복지최강김양팀 단체사진

Ⅴ. 일본의 장애인 복지 흐름 및 장애인자립지원법 변천과정

■ 장애인자립지원법

1) 역사

2005年 2月10日、법률안 각료회의 결정
2月16日、東京都 미나区 芝공원에서 법률 반대운동과 데모 행진
7月13日、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8月8日、중의원에 넘겨졌지만 우정민영화에 따른 중의원해산에 의해 일단 안이 폐지됨
10月14日、중의원본회의를 통과
10月31日、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민주당, 공명당의 찬성다수에 의해 가결, 성립
2006年 4月1日、일부시행、同年10月1日본격시행
2009年 3月31日、후생노동성이 장애인자립지원법등의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171회 국회에 제출
9月19日、민사국연립정권· 鳩山내각의 長妻昭후생노동대신은 동법의 폐지를 명언
12月8日、내각에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를 설치
2010年 4月1日、저소득 (시군구민세비과세)장애인등에 대해, 복지서비스및 보장구에 관한 이용자부담무료화
12月3日、第176회 국회에서、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의 검토를 거쳐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재검토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통칭, 장애인자립지원법개정안) 이 성립
2012年 2月10日、野田내각 각료회의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지를 각료회의 결정
6月20日、第180회 국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실현을 향해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하기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이것에 의해,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통칭 장애자종합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본 법률의 시행은 2013년 4월 1일부터

2)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 배경

장애인에 관한 시책은 2003년 4월 정상화 이념에 기초해 도입된 지원비제도의 시행에 의해 종래의 조치제도에서 크게 전환 되었음. 하지만 지원비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신체, 지적, 정신이라는 장애종별 개개 마다 종적관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점.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지원비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지자체에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체재가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의 장을 확보하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수급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전국공통의 판단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이용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제정되었음.

3)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중요사항

○이용자본위의 서비스 체계

장애의 종별(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사업체계를 재편했음.

○서비스 제공주체의 일원화

지금까지는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현과 시군구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구가 책임을 지고 일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수급결정절차의 명확화

지원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구분을 설치했음. 그리고 수급결정의 공평공정의 관점에서 시군구심사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 수급결정을 진행하는 등, 수급결정과정의 명확화 투명화가 도모되었음.

○취업지원의 강화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의 강화가 추진되어지고 있음.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국가의 비용부담 책임을 강화 (비용의 2분의 1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용자도 이용한 서비스의 양과 소득에 따라 원칙적으로 1 할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서로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되었음.

4)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①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체계

서비스는 개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정도와 감안해야할 사항 (사회활동, 개호자, 주거등의 상황)을 거쳐, 개별적으로 수급결정이 정해지는 [장애복지서비스]와 시군구의 창의적인 연구에 의해, 이용자 분들의 상황에 맞혀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별되어짐. [장애복지서비스]는 개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개호급여], 훈련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등급여]로 구분되어져, 각각의 이용 절차가 다름.

②이용절차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종합적을 판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심신의 상황(장애정도구분)과 장애인 분의 서비스 이용 의향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수급결정을 진행함. 그리고, 장애보건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진 제삼자로 구성되어진 시군구심사회에서 공평, 공정한 수급결정을 진행하도록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③이용자부담의 구조

이용자 부담은 지원비제도와 같은 소득에 따른 차등부담에서, 서비스의 양과 소득에 착안한 차등부담 구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장애종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던 식비 광열수도비의 실비부담도 재검토되어, 3가지 장애에게 공통된 이용자부담의 구조로 변경됨.

다만, 定率負担、**実**費負担 의 각각에 있어, 저소득층의 이용자 분들을 고려한 경감책이 강구되어져, 무리가 없는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고려가 진행되고 있음.

④자립지원의료

장애인의료비에 관한 공비부담제도는, 신체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갱생의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공비]로 각 개별의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립에 따라 이들을 일원화한 새로운 제도 (자립지원의료제도)로 변경되었음.

⑤보장구비의 수급

보장구(장애인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며,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등. 의지, 장구, 휠체어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현물수급에서, 보장구비의 수급으로 크게 변화됨.

⑥지역생활지원사업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립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동지원사업,

일상생활용구지원사업, 커뮤니케이션지원사업등을 전담함. 한편 광역시, 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지원사업, 시군구 권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됨. 또한 지역생활지원사업은, 인구규모, 공공교통기관의 상황등 의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의 창의적인 연구에 의해 유연한 형태로서의 사업실시가 가능하게 됨.

□거택개호

장애인등에 대해, 거택에 있어서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증방문개호

중증의 지체부자유자이고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 거택에 있어서의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한 편의 및 외출시에 있어서의 이동중의 개호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행동원호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행동상에 현저한 곤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등으로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 당해장애인등이 행동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호, 외출시에 있어서의 이동중의 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요양개호 (의료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상시개호를 요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있어서, 병원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시설에 있어서 실시되어지는 기능훈련,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있어서의 개호 및 일상생활상의 돌봄 제공.

□생활개호

상시개호를 요하는 장애인으로서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 주로 주간에 있어서, 장애인지원시설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시설에 있어서 실시되어지는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창작적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기회 제공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동주간보호서비스

장애아에 대해서, 지체부자유아시설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지도,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훈련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단기입소

거택에 있어서 그 개호를 담당하는 자의 질병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장애인지원시설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시설에의 단기간 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등에 대해서, 당해시설에 단기간입소를 시켜,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중증장애인등포괄지원

상시개호를 요하는 장애인등으로 그 개호의 필요 정도가 현저하게 심한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대해, 거택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

□공동생활개호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있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만한 주거에 있어서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시설입소지원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있어서, 입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립훈련

장애인에 대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기간에 걸쳐,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취업이행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기간에 걸쳐, 생산활동 그 외의 활동의 기회 제공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취업계속지원

통상의 사업소에 고용되는 것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활동 그 외의 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해서, 그 지식 및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공동생활원조

지역에 있어서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주로 야간에 있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만한 주거에 있어서 상담 그 외의 일상생활상의 원조를 행하는 것.

서비스 이용계획작성비

고액장애복지서비스비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시군구가 실시하는 사업 : 지역생활지원사업

광역시, 도 가 실시하는 사업 :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서, 상담업무등에 있어서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지원사업 그 외의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로 한 사업으로서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사업

5)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위헌소송

차등부담의 실시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 일수로 서비스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받은 서비스 분량만큼 (1할 부담)을 지불해야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의 장애인은 [일본국헌법 제 13조, 제 14조 , 제 25조에서 보증되어져 있는 생존권의 침해]로, 전국의 지방재판소에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만약, 서비스 부담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군구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법위헌소송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7일, 원고단, 변호단과 후생노동성이 기본합의문서를 교환하여, 소송은 화해로 움직이고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위헌소송단은 아래의 요망서를 鳩山由紀夫내각총리대신과 長妻昭후생노동대신에 제출하고 있다. 4월 23일 화해성립.

①장애복지제도의 근본문제

-계약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문제의 해소
-개호보험우선원칙(장애인자립지원법 제 7조)의 폐지를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
-부양의무의 재검토
-사회참가지원의 확충
-장애인의 요구에 부함된 보장구지원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이용자부담의 문제
-장애복지시책은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자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
-수입인정의 재검토

②긴급과제

-실비자기부담의 폐지
-보수지불
-취업이행지원의 기간 폐지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지역간 격차 해소
-당사자참가와 검증
-이용자부담을 이유로 퇴소한 이용자의 실태조사
-신법제정과정의 장애 당사자의 참가
-신법제정과정에서의 우리들의 참가
검증회의의 성립

6) 장애인복지시책의 재검토

2009년도 9월 9일 연립정권합의 있어,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폐지되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이, 이용자의 차등부담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게 되었음. 지역사회에서의 공생 실현을 향해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6월 20일 성립, 동년 6월 27일 공포)

① 취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등에 있어서의 검토를 거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생실현을 행하여, 장애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강구 하기로 한다.

② 개요

1. 명칭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한다.

2. 기본이념

법에 근거한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지원이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참가의 기회 확보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생, 사회적 장벽의 제거에 기여하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지는 것을 법률의 기본이념으로서 새롭게 주장한다.

3. 장애인의 범위 (장애아의 범위도 동일하게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인의 범위에 난병(難病)등을 추가한다.

4. 장애지원구분의 창설

[장애정도구분]에 대해서, 장애의 다양한 특성 그 밖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되어지는 표준적인 지원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지원구분]으로 개정한다.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구분의 제정에 있어서는 적절한 고려 등을 행한다.

5.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중증방문개호의 대상확대 (중증의 지체부자유자등이고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서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함)

②공동생활개호(케어홈)의 공동생활원조(그룹홈)로의 일원화

③지역이행지원의 대상확대(지역에서의 생활에 이행하기 위한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후생노동성영으로 규정하는 것을 추가함)

④지역생활지원사업의 추가(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연수와 계발을 실시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실시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등)

6. 서비스 기반의 계획적 정비

①장애복지서비스등의 제공체제확보에 관한 목표에 관한 사항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의 장애복지계획의 책정

②기본지침, 장애복지계획에 관한 정기적인 검증과 검토를 법으로 정함.

③시군구는 장애복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장애인등의 욕구파악을 실시하는 것을 노력의무화

④자립지원협의회의 명칭에 대해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탄력화 함과 동시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가를 명확화

③ 시행일

2013년 4월 1일 (단, 4. 및 5. ①~③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일)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Ⅳ.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언

1. 다양한 연수주제에 대한 연구

1) 연수주제 공모나 현장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 욕구 및 이슈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2) 분야별로 다양한 연수주제 선정 필요.

2. 다양한 연수방법에 대한 연구

1)주제

① 주제를 정해놓고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법

② 자유분야에 따라 신청자가 주제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법

2) 팀 구성 및 기한 등 진행방법

① 올해 진행되었던 공모전에서 주제에 따라 각 개인이 신청하여 팀을 이루는 방법

② 팀을 구성하여 연수주제를 선정하거나, 연수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방법

③ 연수주제를 선정한 팀은 주제에 맞는 기관선정 및 조율에 따라 최소한 3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배려해야 함.

④ 진행방법: 소그룹으로 견학지를 선택해서 이동하면 좋겠음.

팀별총액제 적용 등도 고려해보면 좋을 듯함.

⇒ 주제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견학처 등 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경남지역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후원하는 stx복지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해외연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노력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복지실천현장에서의 적용방안

1) 정책적 방안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고령화에 대비한 특화된 사업이나 시설이 필요함.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권장 등에 따른 제도적, 재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협조하는 등 범국민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2) 실천적 방안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이 필요하지만, 시설의 필요성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론적 기반 및 체계를 갖추고 각종 도전에 대한 시설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행동문제나 표현, 눈짓으로 나타나는 의사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조화· 시각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단한 노력 필요.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한 직원교육 및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총평: 일본연수를 정리하며-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

복지최강김양팀

복지최강김양팀의 주요 연수소감으로는, 첫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및 상호보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룹홈, 케어홈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현재 일본에 많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시설의 다른 형태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일본의 타 거주시설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었지만, 자립이란 모든 것을 비장애인처럼 잘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통해 자립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립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자립을 위한 지원자가 시설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오롯이 지역사회가 되었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자립을 한다는 말이다. 또한 지원을 통한 자립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이 그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필요성에 대해 상호인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의 복지예산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함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바 이고!

둘째, 자폐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것이다. 견학 전부터 중증지적장애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어도 뚜렷한 답변이 없이, 중증장애인이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돌아왔다. 중증장애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서로의 기준과 인식이 달랐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에 거주해 있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중증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의사와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그룹홈에 보내거나 자립을 하고 있거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설은 복지패러다임변화와 중증지적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험홈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지원이 힘든 것이 많았다.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에서 설명해준 '자폐증의 이해와 관계의 실제' 에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자폐증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맞춘다: 그것을 '들추거나, 잘게 부수는 것' 이 아니라, 장애로서 인정하고 맞춘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공간, 시간, 작업의 구조화와 시각화가 필수이다. 이것이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키워드임에야!!!

우리는 여태껏 우리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지원했던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최저기준' 등 많은 부분에서 보완되고 있지만, 이번에 알게 된 의사소통중심 TEACCH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책자와 논문 등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일본 실천현장의 사례들에서 우리나라 실천현장의 방향성 모색점에 관한 사항이다. 견학처마다 우리의 질문은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나 주느냐? 임금을 많이 주라는 압박은 받지 않느냐? 시설규모의 축소 압력은 없느냐? 시설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들을 했었다. 장애연금과 정부지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며, 따라서 근로시설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정원에 따라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며, 대규모가 아닌한 우리나라처럼 '30인 이하 시설인가' 란 법은 없었다. 소규모화,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지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에서는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신축이 요구되어지면, 정부지원액 얼마, 법인 자부담 얼마 해서 2~30년동안 법인에서 갚아나가며 시설운영을 하고 있었다. 법인 차입금이 원천금지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정부와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법인에서는 투명한 운영,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운영 등을 통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 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종합지원법)] 으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시행일 2013년 4월 1일).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이, 이용자의 차등부담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생실현을 행하여, 장애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출발이다.

우리나라 복지현장의 장점은,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함으로 해서, 처음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실폐한 정책이나 제도는 버리면 될 것이다. 부러워 할 것이 많았지만, 우리의 좋은 점도 깨닫게 된 시간이었기도 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겪고 마침내 해외연수팀으로 선정!! 예정과는 달리 예산상 문제로 두팀이 합쳐져 한 팀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연수목적이 달라 서로 불편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연수의 좋았던 점,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점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이 또한 '남해팀' 과 함께 한 시간들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실현, 장애인 만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않을까!. 견학시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성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제도나 정책의 부족도 물론이지만, 국민성과 문화,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

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열심히 이론적 연구와 견학처에 대한 탐방. 탐색전을 펼치며, 사후 활용도까지 생각해가며 탐구하는 모습에서 열정을 느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노력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거주시설은 아니지만, 장애분야의 다양한 시설을 견학한 것 또한 이번 연수의 큰 소득이다.

이번 연수에서 우리 복지최강김양팀에서는 만족감 한가득하다. 우리 스스로 견학하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일본어전공자가 있었으며,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동료가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시설이 있었으며, 후원해준 stx복지재단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4박 5일간의 일본연수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배움과 익힐 것과 실천할 것이 남았다. 모자란 부분, 궁금한 부분을 보고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에겐, 각자 맡은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몫으로 오롯이 남았다.

쉼과 휴식을 위한 연수 및 문화탐방도 사회복지사는 물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stx복지재단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하는 연수는, 진짜 배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해외연수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다시 한번 이번 연수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stx복지재단 후원, 2012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김영경(한마음학원 사무국장)

공모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든 이번 연수는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공부한 유래없는 연수가 되었다. '노는데' 는 일가견이 있는 나로서는 여행과 공부를 겸하는 연수, 특히나 자기성장과 계발에도 도움이 되어 그야말로 일석 몇조인 셈이다. 게다가 연수비 지원까지. 무궁애학원측의 인맥을 동원해서 일본 현지 견학처 추천을 받고, 방문일자, 인원, 질문사항, 연수목적 등과 협의회와 일정조정 등 노심초사, 수차례의 이메일을 통역을 거쳐 주고 받고..... 복지최강김양팀(복지최강김해양산팀의 축약)을 구성하여 공모신청서 제출, 선정되어 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공부를 한 셈이다.

이번 연수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4박 5일간 동경일원을 다녀왔다. 오고가는 날을 제외한 3일간, 그야말로 오전오후 시설견학으로 꽉악~ 채워진 연수였다. 덕분에 우리 팀이 기획한 사회복지법인 요루베카이 산하 각 시설(지적장애인시설)과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자폐증특화시설)을 비롯하여, 치바 하모니 플라자, 화토비아 하라주쿠(장애인복지센터), 가나가와현 장애자자립생활지원센터(키르쿠), 장애인스포츠 문화센타 요코하마 라포르 등 장애인복지분야의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었다. 일본의 앞선 시설환경을 보고, 우리나라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부러워만 하면 지는 것이다!. 이 부러움을 승화시켜 성장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한다' 고 속으로 다짐하며....

현장실천분야에서는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의 의사소통중심, 개별화중심 TEACCH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이용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화, 시각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키르쿠 방문에 있어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동방향성에 관해 배웠다. 전체 장애자가 한마음으로 운동을 하며, 그들을 알려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게 만들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고 했다. 장애를 이해하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후원도하고 협조도 한다고 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선진 마인드이다.

함께한 다른팀과의 교류 및 그들의 열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장애인분야라도 다른분야에 관해선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했었는지도 느꼈고, 반성하게 되었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실현한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않을까! 아들을 키우며 도로에 유모차를 끌고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회상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일본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 이 [장애인종합지원법] 으로 또 한번 진화되고 있다(시행일 2013년 4월 1일). 우리는 앞선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나 정책으로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수를 주도하고 밀어주신 원장님, 번역과 통역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이동렬교사, 일본현지 견학처 섭외를 위해 애쓴 무궁애학원 이진경팀장, 후원해준 stx복지재단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드린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태옥(늘푸른집 사무국장)

9월에서 10월은 시설에서 연중 행사가 가장 많은 달, 끊임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차라리 1~2주 연수가 연기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연기된다고 해서 업무의 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연수가 시작되고 오전, 오후로 계속된 기관방문 연수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해외연수를 체험할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하는 일본에서 관광도 없이 '공부' 만 하고 돌아간다니 아쉽다는 마음과 빽빽한 일정을 잘 소화해 낼 수 있을지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관광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관광에서 오는 피로와는 뭔가 다른, 기분좋은 피곤함 가운데서도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대에 찼던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자폐증특화시설' 의 방문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않았다.
우선 자폐증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자폐증인에 대한 이해와 대응의 포인트, 그들의 사회참가를 위해 함께 해야할 노력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자폐증의 또 다른 모습 고기능(高機能)자폐증과 자폐증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나름 개념정리가 되었다. 특히 TEACCH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공간과 시간과 작업의 구조화는 우리원의 이용자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이것만으로도 이번 연수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자폐증인이 패닉상태에 빠지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폐증인에게 구조화된 지원을 하지않은 지원자의 문제'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자폐증인의 사회참가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음을 반성했다. 장애인복지와 배리어 프리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인권, 심지어 자립을 고민한다 하면서도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가지지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물리적, 제도적 배리어 프리를 넘어 마음의 배리어 프리가 "보통" 의 생활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배리어 프리라는 말에 진정으로 동감한다.

장애자스포츠문화센터 요코하마 라포르 견학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해외연수에서는 주로 거주시설이나 복지관등 이용시설을 방문하는데 장애자스포츠문화센터를 방

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안내표지판들을 보면서 장애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레일을 이용한 육상 트렉은 놀라웠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 장애인들도 수영, 볼링, 양궁,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래본다.

도가니사태로 인한 장애인인권실태조사로 자립과 탈시설, 그리고 거주시설 존립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일본 자립생활지원센타가 지향하고 있는 '자립'의 모습은 참으로 궁금했다.
그들이 말하는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자가 일반인과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며, 무조건적인 탈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립을 통하여 민간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던 것을 이해받아 민간속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 민간인을 통하여 법 개정에 참여케하고 이것이 예산에까지 반영되도록하는 것이 가나가와현 장애자립센타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여 시설과 자립지원센타의 공존을 추구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보았을 때 참으로 부러웠다.

연수를 시작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준비가 되지않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4박5일의 시간이 지나보니 너무나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기관 연수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고, 초저녁 시간을 이용한 숙소 주변의 백화점과 마트에서 짧은 쇼핑시간 동안의 일본느끼기, 매일 밤 10시부터 시작된 <복지최강김양>팀의 복지이야기 나눔 시간, 마지막 날 연수팀 모두가 모인 평가회 시간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쉬움이 있다. A,B 두 팀으로 진행된 연수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우리 A팀의 통역을 연수에 참가한 팀원이 담당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복지용어와 같은 전문용어의 통역은 일반 가이드보다 쉽겠지만, 약속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하고, 통역을 넘어 가이드 역할까지도 하다보니 기관방문 동안 마음의 부담이 크지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STX복지재단과 연수 기회를 마련해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연수의 기회가 해마다 이어져 경남의 사회복지가 해마다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에너지를 모아 참가자 모두의 마음이 <유니버셜 디자인> 되도록 파이팅!!!

제목:4박 5일간의 해외연수를 마치며...

이동렬(한마음학원 생활재활교사,통역담당)

견학시설에서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연수를 시작하였다. 연수 출발 전에 우리 복지최강김양팀이 견학 할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홈페이지와 메일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다소 걱정은 덜 했지만 다른 견학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함께 동행해준 여행사 가이드님의 덕분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관광을 하는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너무 빡빡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끝나고 난 지금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기획되는 해외연수에는 하루의 오후 나절이라도 참가자들에게 할애해 주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가자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이번 연수기회를 통해 베리어 프리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고 나와 같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베리어 프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조금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실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케어를 담당하는 나의 입장에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것은 정책이나 제도의 현상이나 흐름에 대한 견학보다는 마지막 견학지인 사회복지법인 요코하마 야마비코노사토에서 호시노 시설장님으로부터 받은 자폐증의 이해라는 강의 내용이었다. 나와 같은 입장에서 지적장애인 특히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 이용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강의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저녁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번의 첫 시도를 통해 다음 해외연수에는 참가자들이 더 의미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연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도, 그리고 연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세운 협의회측도, 재단측도 모두 최선을 다해 이번 연수에 전념했다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연수를 기회로 다음 해외연수에는 좀 더 알차게 기획되어 좀 더 의미있는 해외연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제목: BLABLA

장성만(무궁애학원 총무팀장)